

“동학혁명은 5·18로 이어진 민주주의 시원”

18일 정읍서 학술대회 “동학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민주주의 정신 되짚어 보고 나아갈 길 찾는 시간 될 것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북 정읍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오는 18일 정

읍시 향토현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영호 인화대 교수는 ‘동학농민전쟁의

계승과 노선 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유바다 고려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역사를 살펴본다. 조규태 한성대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민족운동’에 포커스를 맞춰 발표하고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은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한국 민주화의 흐름을 되짚는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이라며 “학술대회는 동학농민

혁명이 지향했던 정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될 것”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관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최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전북도의회도 앞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멸종위기 2급 가시연꽃 장흥군 삼산호서 발견

담양·임실 등 10여 곳 자생

장흥군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 군락지가 관산읍 삼산호에서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가시연꽃은 세계적으로 1속 1종밖에 없는 한해살이 물풀로, 장흥에서 발견된 것은 안양면 해정저수지에 이어 두 번째다. 발아율이 낮아 주위 여건이 양호해야 꽃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경남 장남 우포늪과 충북 보은, 전북 임실, 담양 등 10여 곳에서만 자생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연결 해양테마파크로”

전북 공무원 제안사업 공모 최우수 아이디어로 꼽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테마파크를 만들면 관광객 뿐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북도가 올해 공무원 제안사업 공모 ‘사업제안 아이디어’ 공모 결과, ‘고군산군도 O2O(온·오프라인 연계) 해양테마파크 조성’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섬들이 산처럼 웅집해 있는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총 63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업은 군산 앞바다 50km 반경에 늘어난 고군산군도의 섬과 섬을 잇는 해상형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능형 인터랙션 기반의 증강현실 식물원과 동물원 등을 중

심으로 한 ‘체험형 테마파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서해바다 한가운데 점점이 떠 있는 조그만 섬과 섬 사이를 연결,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자연 풍광 외 젊은층들을 겨냥한 IT 연계 체험시설을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다. 군산, 부안, 김제 등 새만금 지역의 바다고기, 조개류 등을 활용한 수산물 육종가공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구상도 새만금 활성화와 연계, 주목을 받았다. 새만금 사업지구 내 민간 주도로 세계 각국의 전통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건축박람회 개최하면 새만금 개발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도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뽑힌 6개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검토한 뒤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박국석기자 nogusu@

전주시, 올해 두 번째 전국 드론축구 개최

내일까지 대구엑스코 전시장

드론축구대회가 인기를 끌고있다. 국내 최초로 드론축구팀을 창단한 전주시는 14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엑스포드론축구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대구엑스코 전시장에서 전주시 선수단을 비롯해 전국 8개 팀이 참여한다. 드론축구는 첨단 탄소소재와 ICT융복합 기술로 제작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고도의 비행제어 기술을 활용해 너비 80cm 정도의 원형 골대에 집어넣는 신개념 ICT스포츠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3D프린팅 드론 산업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공식 드론축구 전국대회는 지난 6월 일산테크노 ‘로보유니버시티&K드론’ 행사장에서 열린 ‘제 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주시는 드론축구 산업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드론축구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드론축구협회 정식 설립도 추진중이다. 더 나아가 드론축구 동아시아 대회와 아시아컵 개최, 드론축구 월드컵 대회 개최까지 계획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드론축구공 제조기업(5개), 유통회사(2개)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 200여개의 드론판매점에 전주 관내 업체가 만든 드론 축구공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드론 경쟁력으로 레저스포츠와 산업화 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도심 속 캠핑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전주 나들목공원서 운영

전주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전주나들목 가족공원(면적 5만6941㎡)을 주말 캠핑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나들목 가족공원은 그늘막 쉼터와 야외 데크,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어 전주 시민들이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캠핑하기 좋은 장소로 주목을 받았다. 주변에는 어린이 교통공원도 있어 캠핑도 즐기고 교통 안전체험도 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매주 10개 팀을 뽑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정식 야영장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안군정 주요 시책, 주민 80% 꺾

교육복지 등 12개 부문 조사 시책·생활환경 순으로 높아

부안군민 10명 중 8명은 부안군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2017년 상반기 주민만족도 조사를 결과,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가 79.77점, 생활환경 만족도는 75.59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19세 이상 부안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의 경우 주민만족도 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14년에 비해 11.23점이 증가했고 생활환경 만족도는 7.73점 증가했다. 부안군이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시책사업 만족도는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활성화로 인한 전국 최초 대학신

입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교육복지 정책과 인구늘리기 정책 등이 만족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안군은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교육복지·인구늘리기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군민서비스 등을 강화해 주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밀착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부안군은 주요시책사업의 경우 주민소득증대·귀농·교육복지·인구늘리기·관광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고 생활환경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대중교통·상하수도·도로정비·재난대응 등 12개 부문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관광개발 정책과 주민소득증대 정책 부문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전 분야에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약·부안=김민준기자 jun@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선한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10전환 4억
- 농성초교부근 2층 상가주택 대지 108㎡ 건물 113㎡ 1억8백
- 화정동 중흥파크2-편 대지 149㎡ 주택 160㎡ 상가전용가능 2억3천
- 화순읍 동면 소재지부근 대지 320㎡ 국유지 500평도 사용 새복출 주택 60여평 실내는 판백나무 준중 갤러리 및 카페용 최고 3억8천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투자·매도·교환

- 담양 고서면2차선집 1271㎡ 건물 212㎡ 철교·식당등적합 4억7300
- 원도 약산면 대지등 1266㎡ 주택 27평 염소사육적합 12893㎡ 2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접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접 대지 313㎡ 건물 997㎡ 전세 3억5천 월 1100선 25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준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4억5천

급매

- 영암 심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상리 14479㎡ 담양호안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델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전, 농성초교옆문앞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농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